

#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수행할까?

## — 超越의 길, 內在의 길 —

로버어트·터얼만

(앰허스트大 종교학 교수)

어떠한 宗教에 있어서나, 또는 믿음과 실천의 體系에 있어서나, 무엇이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이나 하는 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또, 어떠한 宗教的 修鍊이나 人間教育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全過程은 바로 이 「궁극적 실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데 따라 그 性格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宗教의 創始者나 이데올로기의 창시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성적 해석을 거쳐 그들 자신의 체험으로 얻은, 「궁극적 실재」에 대한 決斷에 근거를 두어왔다. 佛陀는 보리수 아래에서 「궁극적 현실」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고, 孔子는 평생동안 학문을 닦고, 깊이 사색하고, 실천함으로써 점차 그의 思想을 完成시켜 갔다. 모세는, 「궁극적 실재(절대자)」로 顯現하여 계시를 내리는 神과의 직접적인 對面을 체험했으며, 예수는 하늘이 그에게 열린 것을 보고, 그의 아들됨과 세계의 전도사로서의 기름부음(anoint)을 받았다. 모하멧은 알라(Allah)의 使者들의 압도하는 듯한 환상을 보았으며 그 자신이 神에 의해 사로잡혀 있음을 느끼고, 「암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중 佛陀와 孔子는 人格化될 수 있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셋은 그러한 認識을 경험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인간들이 절대자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필요성까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生涯와 가르침은 그후 그 「궁극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결코 분

리해 생각될 수 없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生涯는 그 추종자들에게 하나의 이상적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각각 完成과 自由와 救援의 영원한 法則이 된 것이다.

뉴우톤(I. Newton)과 마르크스(K. Marx)도 「궁극적인 것」, 즉 궁극적 실재의 본질에 대한 直觀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그러한 「궁극적 실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궁극적인 것」을 一元論的인 「物質과 物理的 힘의 世界」로서 경험했다는 사실은 아마도 그들 자신이 이상적인 人間의 모델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遂行하지 못했음을 立證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非人格的, 물리적 세계에 있어서는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理想은 「개인적인 不完全性」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다만 상대적인 물질적 상황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집단적이고 과학적인 노력이나 사회적 노력의 여지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몇 가지 사실들을 想起만 해도 우리는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가 갖는 중요성, 그런 탐구가 모든 정신적 수련의 「원리와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참된 삶의 「원리와 근거」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이 「궁극적 실재」인지를 직접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궁극적인 것」이나 하는 결정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制度나 機關들, 言語나 文化나 하는 전통적 관습이나 혹은 政府나 宗教단체와 같은 既存기관으로부터 우리에게 강요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이 「궁극적 실재」인지를 경험함에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계시를 받는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경우에는, 意志와 理性을 쓰게 될 것이며, 또 설사 至高한 감정적 직관이 얻어진 경우에도 혹시나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파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理性과 意志를 써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신앙체계 창시자들의 경험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制度化된 종교 및 이데올로기들은 소수의 엘리트층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다수의 신자들에게 독단적인 교의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대답할 줄 모르는, 준비없는 사람들을 不安과 混亂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에게 이익보

다는 손해를 주고 그들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어떤 교의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가지고서는 한 사람의 삶과 행위를 「질적으로 변화」(초월적 경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러한 교단들은 그들의 宗教에 대해 아무런 신뢰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다수의 「입으로만 믿는 형식적인 신자들」(mouth-believers)을 갖는 상황에 직면해야만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독교의 설교집, 회교의 설교집, 불교의 설법서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는데, 거기에서는 설교자들이 격분하여 신자들의 잘못된 信心을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理想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불교의 한 예로서, 7代 Dalai Lama인 Gyalwa Kalsang Gyatso (1708~1757)의 작품에는, 피상적인 종교인을 질책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고행이야말로 해탈을 얻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 그리고 그들은 승려의 옷을 걸치고 法을 말한다. / 그러나 설사 그들이 설법을 한다해도 / 五毒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 그들은 덕있는 체하고 허물을 감추지만 / 부패가 도처에 만연해 있다...”

“나는 지혜의 눈을 열었다.

나는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

그러나 그들은 남의 행복을 보면 질투심으로 이글거리는 뱀의 혀바닥을 날름거린다. /

남을 구하려 하면서, 그들은 모두를 파멸시킨다. /

그들은 평화로운 사람처럼 곱게 단장한 백정이 아닌가?”

世俗적 信條, 유물론적 휴머니즘 혹은 至福千年을 외치는 공산주의, 이들이 채택한 「궁극적인 것에 대한 해석」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어떤 종류의 종교적 수련도 가능케 하지 못한다. 부르조아의 「잘못된 의식」을 타도하려는 시도가 정치적 세뇌교육을 통해서 단지 제한된 성공만을 거두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때에는 적어도 「이상적인 범전」(ideal code)에 대한 최소한의 外形上의 一致라도 보장하려고 노골적인 국가의 강제 강압정책이 취해지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종교의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른바 현대성이란 것이 문제이며, 無節制한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문제이며, 도덕적 타락이 초래되는 전반적

#### 4 佛敎研究

인 혼란이 문제라고 통탄들을 한다. 그 계종교, 계종파의 학자들은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갈 때 그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많은 대중들이 「궁극적 실재」에 대한 독자적 경험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 못되고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다. 인간의 罪나 無知의 심각성을 看過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완전주의」(perfectionism)를 내세우는 악마적 궁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전통주의자들은 보다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神의 섭리나, 佛陀의 善巧方便에 대한 믿음의 결핍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의 교단제도와 거기서 비롯된 엄격한 심판을 자랑스럽게 맹신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敎團 구성원에 대한 敎義의 注入, 도그마, 그리고 강요된 도덕은 매우 비능률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상의 기독교국가들이나 回敎王國(Dar-al-Islam), 혹은 불교왕국의 지도자들은 국내적 방법으로는 억압을 쓰고, 대외적 방법으로는 침략전쟁을 써서 국민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등 항상 「힘」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거나 혹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정자들이 하나의 안전판으로서 敵에 대한 군사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 졌다. 또한 한 나라 안에서 압박받는 다수는 고도로 현대화된 경찰국가기관에 대항해서라도 불가피하게 혁명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기독교로 말하면 神의 섭리, 불교로 말하면 佛陀의 慈悲方便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통제할 것을 배울 필요성을 분명히 자각하게끔 한다.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중오심을 떨쳐버리고, 자기중심의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하며, 이웃사람을 좋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有神論的 입장에서 말한다면 진정으로 그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者만이 진심으로 神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無限神論的 입장에서 말한다면 「궁극적 실재」의 본성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지혜만이 진정한 無我의 慈悲를 產出할 수 있다.

無神論的 입장에서 말한다면, 어떻게 無(nothingness)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연결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無의 현실에 단호히 직면함으로써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진정한 행위」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종교는 한편으로는 「엘리트계층」과 다른 한편으로는 善을 위해서 꼭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일반신자대중」, 이 두 계층간의 오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수도자나 수피교(sufism)의 신비주의자, 혹은 士大夫의 專有物이었던 「종교적 수련」이 이제는 일반대중에게도 가까이 하기 쉽게끔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서 그들 자신의 창의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교단들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대중들(그들의 힘은 쉽게 각종 선동자들에 의해 이용당하는), 그 대중들에 의해 부서질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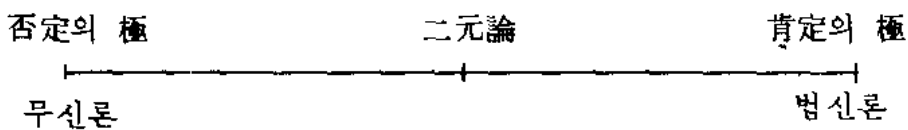
이런 상황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궁극적인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종교적 수련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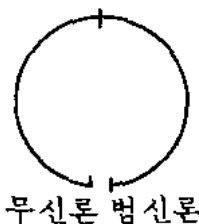
그들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모든 전통종교는 궁극적인 것을 언급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apophatic) 방법과 긍정적인(kataphatic) 방법의 두 가지를 택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전통종교를 정리할 수 있다. 肯定의 극단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汎神論일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궁극적인 것」이란 아버지를 닮은 존경하는 신사와 같은 하나의 神의 육신으로서의 「自然모두」로 나타날 것이다. 否定의 극단은 「궁극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無神論, 즉 유물론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거기서는 「궁극적인 실재」가 없다고 주장된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패턴을 일직선상에 그려 볼 수 있다. (도형 A).



도형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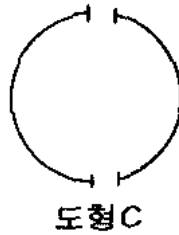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圓周상에 그려져야 한다. (도형 B)



도형 B

왜냐하면, 범신론과 무신론은 결국 하나의 동일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객관적 물질로서의 물질」(matter as matter)이건 혹은 「神의 육신으로서 물질」(matter as God's body) 이건, 「자연」(nature) 이야말로 유일한 실재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우리가 「궁극적 실재」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고자 하면 반드시 「상대적, 실제적이거나, 혹은 세속적인 실재」(relative, practical, or mundane reality)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을 알게끔 한다. 두가지 실재는 불가피하게 상호 관련을 가진다. 즉 「궁극적 실재」에 관해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상대적 실재에 관한 견해도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범신론과 무신론은 각각 오직 하나의 실재만을 인정하는 일원론적인 것으로 귀착되고 만다. 이 세계가 전적으로 聖스러운 것이라고 보건, 혹은 전적으로 俗된 것으로 보건간에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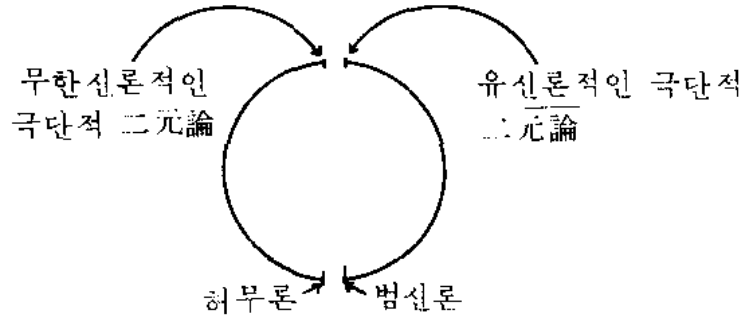
이와같이 하여 지금 우리가 설정한 線의 중심 (즉 원주상에서는 반대쪽에 있는 점)은 二元論의 극단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도형C)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양자택일적이고 상호배제적이며 양자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가진 별개의 실재가 된다. 有神論的인 전통종교와 無限神論的인 전통종교에서는 그러한 견해를 묘사하는 듯이 보이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공허한 가설적인 극단일 뿐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他者」이고 또 완전히 단절된 「절대적인 것」이란 전혀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뚜렷한 二元論의 형태인 小乘佛敎는 윤회의 無始無終함 뿐만 아니라 열반의 절대적 초월성과 순수성 및 비상관성을 주장하면서도 개체가 涅槃寂靜에 도달할 수 있으며 상대와 절대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가장 뚜렷한 二元論의 형태인 有神論은 神의 근본적인 他者性, 無限性, 非所因性(uncausedness)과 구제받지 못하는 피조물의 영원한 斷罪상태를 강조하면서도 神은 피조물이 구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모든 종교의 교리는 절대적인 것과 상대

적인 것 사이의 某種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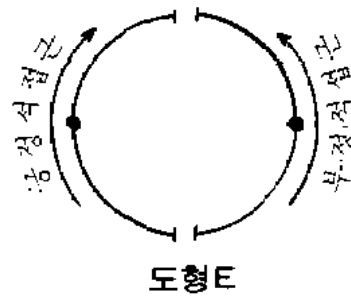
이제까지 서술한 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형을 그릴 수 있다. (도형D)



도형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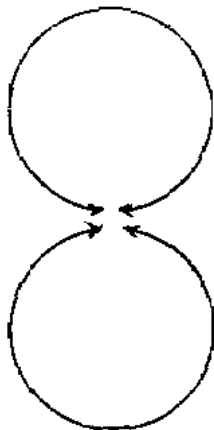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圓의 왼쪽에 「무한신론적 체계」(infini-theistic systems) 그리고 오른쪽에 「유신론적 체계」(theistic systems) 라는 실제의 종교적 교리체계를 그릴 수 있다. 왼쪽에는 佛敎, 道敎, 자이나교, 유교, 힌두교의 다양한 형태가 속하고 오른쪽에는 아브라함系의 전통, 즉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신론적 성격을 띤 힌두교, 일본의 神道, Bon敎, Yoruba, 그리고 수많은 部族종교들(tribal religions)이 속할 수 있다.

종교체계가 二元論的일수록 圓의 양쪽 모두에서 上段에 위치하고, 一元論的일수록 下段에 위치한다. 나는 여기서 이에 관해 더 이상의 상세한 언급은 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의 기본 목적은 대부분의 종교체계에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방식(kataphatic)과 부정적인 접근방식(apophatic)이 다 있음을 이해하게끔 하는 하나의 윤곽을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유신론의 한 형태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극단적 범신론에 접근하게 되며 도형상 원의 하단부에 놓이게 되고, 그 형태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극단적 이원론에 접근한다. 또한 무한신론적 체계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왼쪽 하단부로 내려가서 허무론적 一元論에 접근하고 그것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일수록 二元論에 접근한다. 유신론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되면 그것은 정점을 지나 무한신론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역으로 무한신론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되면 그것은 유신론으로 전환될 수 있다. (도형E)



이제 나는 도형E를 약간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려한다. 각 반원의 중심에 한개씩 두개의 점을 표시해 보겠다. 이 점은 필요에 따라 어떤 때에는 긍정적인 접근이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부정적 접근이 되는등 균형을 유지하는 하나의 교리체계, 즉 왼쪽은 「무한신론적」이고 오른쪽은 「유신론적」인 그런 교리체계를 나타낸다.

다음에 나는 이들 두개의 점을 원 안으로 끌어당겨 「8」이라는 숫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도형F 참조) 그 다음 그 두개의 점 주위에 작은 원을 그린다. (도형G)



도형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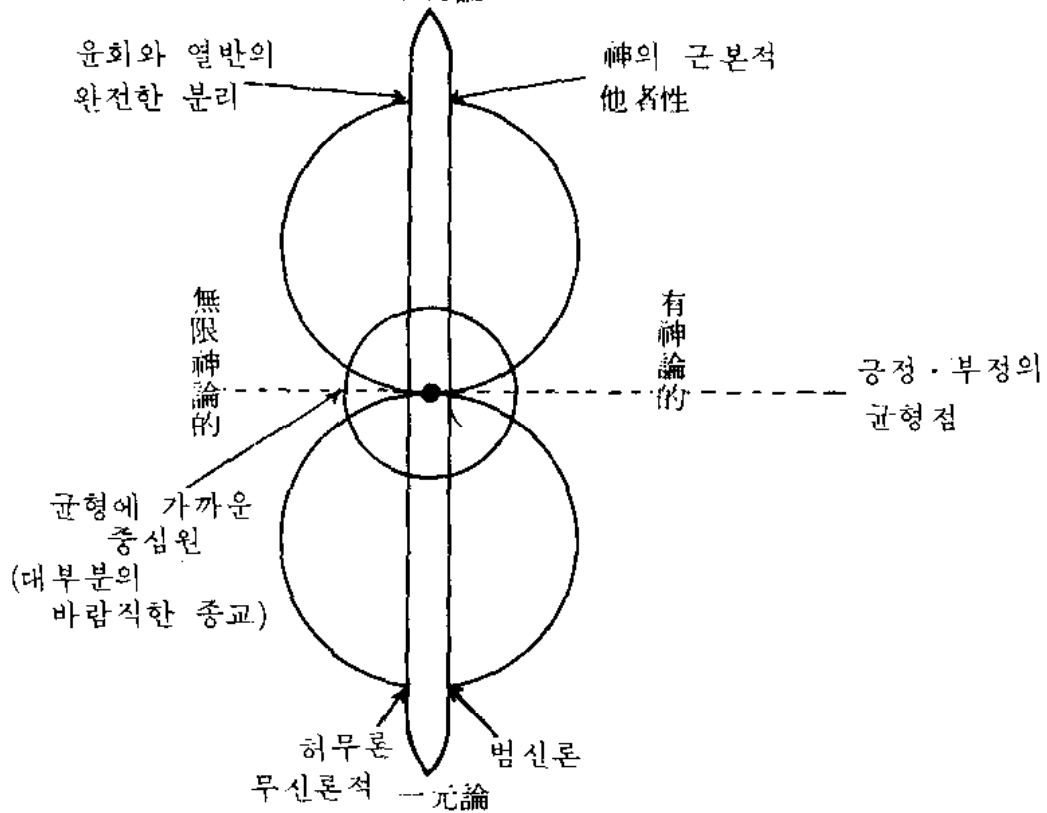


도형G

이 작은 원을 그리는 목적은 긍정적 접근과 부정적 접근의 양측의 여러가지 교리체계를 포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원은 긍정적 접근과 부정적 접근의 두 교리체계의 정확한 균형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초월적인 것에 초점을 두면서도 内在的인 것을 포괄하고 또 때로는 内在的인 것에 초점을 두면서도 超越的인 것을 포괄하면서 이 兩者를 다 疏外시키지 않고 살릴 수 있는 圓이다. 그리고 나는 바람직스러운 거의 모든 종교체계가 다 오직 이 작은 圓안에서만 발견된다고 감히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긍정적인 접근(무한신론적)과 부정적인 접근(유신론적)의 양자를 이 작은 원



안에 그려 넣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본래의 원에서처럼 가장 먼 곳에 (가깝기는 하지만 서로 대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점을 대치시키기 보다는 두가지 다른 형태의 교리체계가 함께 만나는 보다 중요한 「제 3의 견해」가 있음을 지적하려 하기 때문인 것이다. 二元論



도형H

앞으로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가운데에 있는 軸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도형H의 軸)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수 있게끔 그려진 것이다. 즉 그 軸을 이루는 空間은 無重力의 房으로서, 어떤 極端論들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두가지 中道主義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거나, 그 방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떤 다른 極에 있는 自身을 발견하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無重力상태의 房이다. 일단 神이란 存在가 우리와 상관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超越的인 것이 되어 버리거나, 또 궁극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나 희박하면, 사람들은 칩사리 어떤 극단적인 見解에로, 심지어는 虛無主義에로까지도 떨어지고 만다. 또 한편 Nirvāṇa는 거의 모든 視野를 벗어나 있는만큼 그것은 또 神이나 自然 혹은 無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와같이 完全한 無神論者나 完全한 汎神論者는, 無限神論的이 되거나 有神論的인 極端的 二元論者가 되기가 매우 쉬운 것이다. 肯定的인 意味에서 말하자면, 이상 네개의 極端論者들은 아무리 過激할지라도 깨달음의 閃光이 비칠 때 바람직한 中心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도형을 이용한 설명들을 통해 우리는 종교적 修鍊으로서 혹은 교리의 집대성으로서의 종교적 諸體系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에 대한 肯定的인 말들과 否定的인 말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신론의 體系들은 그 자체안에 內包된 부정적인 요소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나하면 無限神論的 體系들은 그 자체속에 內包된 肯定的인 입장들을 無視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세계의 종교들이 서로 만나 서로를 풍부하게 하는 오늘날 對話의 풍토에서 각 종교는 다른 종교를 거울삼아 자신안에서 看過되고 있는 要素들을 재발견할 수가 있다. 유신론자는 어떻게 神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또 이 책에서도 저 책에서도 啓示가 이뤄졌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매우 심한 비난을 퍼붓기를 좋아할터이므로 그런 유신론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교회당이나 사원의 中心에는 偶像이 없다는 사실, 十字架는 救援의 심벌이지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또 회교의 사원에는 인간의 형상도 神의 형상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위대한 一神敎들은 갖가지 權化身(incarnations)들이 世俗的 表現이나 屬性으로써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것」을 本體로 하고 있다는 인식, 다시말하면 「屬性없는」(nirguṇa) 브라아만(Brahman)을 本體로 하고 「屬性있는」(saguṇa) 브라아만(또는 宇宙의 萬物)이 나타난다는 인식을 언제나 갖고 있다. 一神敎는 언제나 변함없이 앞서부터 존재해 온 諸宗敎의 多神敎的 偶像崇拜의 경향을 매우 강하게 否定하는 특색을 가져 온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神」, 즉 브라아만이 超越性을 지닌다는 敎說, 그리고 그것은 이름부를 수 없는 것, 思議할 수 없는 것이라는 敎說은 완전히 「否定的인」(apophatic) 견해이다. 또 偶像을 믿지말라는 誠命은 바로 敎會라는 共同體들이 자주 犯하는 偶像崇拜의 잘못을 또다시 犯할 것을 우려해서 지적한 중대한 경고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편 無限神論者는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 大覺을 이룰 것을

원하면서, 궁극적인 實相, 즉 空, 無限, 超越的 狀況, 이러한 상황속에 그 자신을 沒入시키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無限神論者들에게는 전통적인 強力한 內在性의 이미지들이 想起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한량없는 빛이신 佛陀, 아미타佛의 力動的인 慈悲를 상기해야 하며, 그리고 실천적인 사랑과 남김없는 自己犧牲의 보살인 觀世音보살의 지칠 줄 모르는 보편적인 行爲를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 크리슈나(Krishna)神의 役割과, 무궁무진한 道力에 의해 活動하는 義로운 지도자의 獻身的 行爲등, 이러한 強力한 內在性의 전통적 이미지들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相對的인 우리의 現實世界속에서 윤리적, 정신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궁극적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전통종교의 이미지들은 無限神論者에게 대해서 훌륭한 三昧之境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慈悲行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 無限神論者로서 有神論者에게 「궁극적 실재」와의 관련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정신적 수련을 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傳統佛敎의 資料를 소개하며, 이를 吟味해 볼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목적으로 나는 티베트의 위대한 라마僧 총카파(Tsong Khapa, 1357-1419)가 지은 Lam Rim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號에 계속)